

SK이노베이션, 개선 가능성 크다!

대우증권, 정유기업 4/4분기 강세 ... 중국 가동지연에 가동률 낮아

KDB대우증권은 2012년 4/4분기에도 정유기업들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8월16일 정유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<비중확대>로 상향 조정했다.

박연주 연구원은 “최근의 정제마진 강세가 소폭 조정은 있더라도 4/4분기까지 견조하게 유지될 것”이라며 “중국 정제설비 가동 지연 등으로 4/4분기 증설이 제한적이고, 재고와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승 여력이 적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중국 석유제품 수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”며 “수요가 바닥을 치고 개선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이어 “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강세로 3/4분기 영업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”며 “국제유가 및 벤젠(Benzene) 스프레드 상승으로 3/4분기 영업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큰 SK이노베이션을 탐픽으로 제시한다”고 덧붙였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8/16>